# 지역 국회의원들 국감 맹활약

## 조영택·김효석·이낙연·장병완 정책자료집 발간

## 이용섭·김재균·김성곤 지역현안 자료 매일 내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성실한 국감 활동을 통해 지역 민심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거의 매일 같이 보도자료를 쏟아내는가 하면 각종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

우선 초선 의원들은 마지막 국감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정책적 내공을 검증받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영택 의원은 미소금융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문제와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무려 12권에 이르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가 하면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사 차별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의 이용섭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세 문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는 등 민주당의 정책통으로서 내공을 과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물론 복지 정책, 물가 정책 등 정책 실패 부분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빛그린 산단 조성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위의 김재균 의원은 최근 정전대란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영호남에 대한 정책적 차별 상황을 집중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중진 의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 3선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은 전세난과 서민 주택기금의 전용, 공기업 부채와 4대강 공사로 인한 혈세 낭비 등 MB정부의 허울뿐인 서민정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F1대회 지원과 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의원도 이명박 정부 물가정책의 허상을 드러내고 서민 물가의 원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노후난민'이라는 신조어를 제시, 국민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경종을 울려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 같은 상임위의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공감을 얻어내는 등 내공을 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4권의 '농정현안 해법 찾기'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직후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한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감시, 비판, 제안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과정을 정리한 1000쪽이 넘는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감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도 초죽음이 되고 있다. 일부 보좌진은 수일 동안이나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의원회관에서 날밤을 세는가 하면 체력 저하에 따른 괴로움도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번 국감 활동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국감활동을 바탕으로 의정보고자료를 만들어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내공 겨루는 孫-朴

## "복지 확충 SOC 투자 줄여야"

## 기재부 국감서 동일 답안 내놔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대표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59)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64)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연일 내공을 겨루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경제 정책을 놓고 미시적 관점(박근혜), 거시적 관점(손학규)을 통해 경합을 벌였던 두 사람은 20일 국정감사에서는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같은 답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복지 수요 대응 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도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구시대적 SOC 투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대신 조세 부담을 높여나가는 게 신뢰받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예산, 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며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전날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는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다시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경제관을 밝힌 뒤 근로층 복지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제도(EITC) 확대와 복지시스템의 통합적 관리라는 미시적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손 대표는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내수에 중점을 두고 민생 안정을 기하면서 성장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법을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을 비판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에 3.5GeV급 방사광 가속기를"

〈기가전자볼트〉

## 김영진 의원 주장… 과학벨트 예산 반토막 질타도

### ■ 국감 현장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교과위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과학벨트사업이 쟁점이 됐으며 외통위의 민주평통 감사에서는 '4·3폭동', '1987년 6월 사태'라고 표기된 평통 배포 소책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이 전날 지경위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뒤집어 빈축을 샀다.

◇**과학벨트 사업 추궁**=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과학벨트 예산이 시작부터 반 토막이 났다"며 교과부가 신청한 과학벨트 예산 4100억원을 21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시킨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질타했다. 그는 또 "과학벨트 광주캠퍼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과학 진흥에 필수적인 세계적 수준의 대형연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포항에 3세대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2대,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 부산에 중입자 가속기 등 4대 모두 영남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전에 중이온 가속기가 건설 중이어서 과학벨트 3각 축 중 호남권만 아무것도 없다"며 3.5GeV(게브, 기가전자볼트)급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광주 유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도 예산 삭감과 관련, "국과위에서는 25개 연구단이 우수 과학자 유치 및 운영에 시간이 소요돼 본격적인 활동은 201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 6개월치 운영비만 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축소는 물론 전체 추진 일정까지 연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25개 연구단(site)의 지역배정과 관련, "지자체 간 갈등요소로 인해 행정적 접근 즉 지역 나눠먹기식 배정 우려된다"며 "과학계의 의견 수렴 후 기초과학연구원의 자율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3폭동''6월사태' 민주평통책자 논란**=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난 7, 8월 제15기 해외협의회 출범회의 당시 배포한 책자 '대한민국 이전 & 이후 대한민국'을 거론하면서 "책자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자에는 '제주 4·3 항쟁'이 '제주 4·3 폭동'으로, '1987년 민주항쟁'이 '1987년 6월 사태'로 각각 기록돼 있다. 또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의 일시적인 유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196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주사파나 PD파 등 좌익세력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는 등의 문장이 게재돼 있다.

원 의원은 "책자에 매카시즘을 뺨치는 주장이 담겨 있는데 평통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권력 사유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력거래소이사장 국감 '중대발언' 번복 빈축**=염 이사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실질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진 적이 전에도 자주 있었느냐는 질의에 "몇 차례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곧 과거에도 전력위기 대응 매뉴얼 상 가장 심각한 '레드'(심각) 단계에 들어간 적이 적지않게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염 이사장은 20일 새벽 1시 58분 전력거래소 홍보담당을 통해 슬그머니 이메일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설립된 2001년 4월 이후 '심각' 단계가 된 적이 없으며, (공급능력에서 실제수요를 뺀) 예비력 기준으로 400만kW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감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역신문 활성화 법적 장치 시급"

## 지역신문 발전 토론회

광주시의회는 20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언론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조오섭(민주·북구 2) 광주시의원의 사회로, 김덕모 호남대 교수가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으며 강철수 광주·전남 민언련 공동대표, 정용화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김명술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활발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언론의 활성화 없이는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기대할 수 없고 지역 언론의 발전 없이 지방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신문과 중소신문 활성화를 위해 우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국 신문회생법의 취지를 살려 중소신문에 비영리지위를 부여하고 중소신문의 광고부가가치세 면제, 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가칭 '신문거래법'을 제정하고 열악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 지원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늘 베이징서 남북 비핵화회담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이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제1차 남북 비핵화 회담과 뉴욕 북미대화에 이은 '2라운드' 후속대화의 출발점으로 향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참석을 위해 20일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19일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가을 여행 특가 상품

상품1 新제주 관광명소탐방 3박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189,000 ~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 매주 목요일 출발 ₩209,000 ~ 광주왕복항공

관광일정 : 유리의성, 오설록 녹차박물관, 서커스월드 또는 코끼리쇼 관람, 카메리아힐, 새연교, 올레길7코스, 관광열차체험 또는 선녀와나무꾼, 조랑말체험, 허브동산, 해양테마파크, 해녀촌

포함사항 : 왕복항공, 숙소(합숙기준), 식사(조3+중2), 관광요금, ★유가할증료 포함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1인 10,000), 선택관광, 2인1실 이용시 30,000원추가

상품2 인기절정 주중 1박2일 골프여행특가
★ 한라산 골프텔 30평 (4인 1실) 36홀 – 아덴힐CC 18홀 + 한라산CC 18홀 ₩349,000
★ 오션스위츠 호텔 (2인 1실) 36홀 – 블랙스톤CC 18홀 + 엘리시안CC 18홀 ₩429,000

상품3 직장인을 위한 매주일요일출발 1박2일 골프
★ 부영 골프텔 30평 (4인 1실) 45홀 – 제피로스CC 18홀 + 부영CC 27홀 ₩329,000

포함사항 : 왕복항공, 숙소, 그린피, 수송차량
불포함사항 : 식사, 전동카, 캐디팁, 기사팁, 유가할증료 (₩26,400)

| 협찬 | KOREAN AIR | Home plus 각화동 홈플러스 | emart 신세계 E마트 | LOTTE Mart 수완 롯데마트 | emart 광산 E마트 | LOTTE Mart 첨단 롯데마트 | Home plus 계림동 홈플러스 | emart 봉선 E마트 | LOTTE Mart 염주 롯데마트 |
|---|---|---|---|---|---|---|---|---|---|
| | | 269-9363 | 360-0166 | 953-5151 | 945-7500 | 974-0033 | 227-3555 | 653-5230 | 676-0085 |